산업융합연구 제20권 제10호 pp. 103-111, 2022
ISSN 2635-8875 / e-ISSN 2672-0124
DOI : https://doi.org/10.22678/JIC.2022.20.10.103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농촌 거주 중년 남성의 노화 불안 영향요인

강문희[1], 곽동현[2*]
[1]충남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충남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생

The Influencing Factors on Aging Anxiety of Middle-aged Men in Rural Area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Moonhee Gang[1], DongHyeon Gwak[2*]
[1]Professor, Colleage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Doctoral Student, Colleage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농촌에 거주하는 중년 남성의 노화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설계는 서술적 조사연구를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G 지역에 거주하는 만 45세 이상 64세 이하 중년 남성 180명이다. 자료는 SPSS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노화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트레스(β=.10, p=.049), 경제적 어려움(β=.16, p=.007),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통(β=.18, p=.003), 가족 돌봄 부담(β=.50, p<.001)으로 확인되었으며 (F=55.93, p<.001),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60.5%이었다. 추후 중년 남성의 노화 불안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중재가 필요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줄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키워드 : 중년 남성, 노화 불안, 농촌 지역, 코로나19, 스트레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n aging anxiety by middle-aged men in rural areas during the COVID-19 pandemics. The design of this study was descriptive survey study. The participants were 180 middle-aged men aged 45 to 64 living in G provinc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statistics 26.0 program.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influencing factors on aging anxiety were stress(β=.10, p=.004), economic difficulties (β=.16, p=.007), COVID-19 psychological distress(β=.18, p=.003), family care burdens(β=.50, p<.001),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variables was 60.5%(F=55.93, p<.001). In the future, interventions are needed to manage aging anxiety and stress in middle-aged men, and support policies are needed to reduce psychological distress and overcome economic difficulties caused by COVID-19.

Key Words : Middle aged men, Aging anxiety, Rural areas, COVID-19, Stres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국내 중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3 이상으로 그 비중이 매우 높으며 빠른 속도로 노년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1]. 중년기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연결하는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시기로 가정에서는 자녀 양육과 부모부양을 책임지고 직장에서는 경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2]. 인생의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인 동시에 노화가 진행되는 중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년기의 삶에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노년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3].

노화는 필연적이고 정상적인 과정이지만 신체기능의 저하, 정신 건강 문제, 가족 구조 및 대인관계 변화 등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3,4]. 특히 중년기는 건강에 대한 만족과 자존감이 감소하고 정서적인 고

*Corresponding Author : DongHyeon Gwak(donghyeongwak@gmail.com)
Received July 26, 2022 Revised August 17, 2022
Accepted October 20, 2022 Published October 28, 2022

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시기로 노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노화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높은 시기이므로 중년기의 건강과 노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4-6].

노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걱정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표현되는 개념이 바로 노화 불안이다[6,7]. 노화 불안은 노인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 외모의 변화와 심리적인 걱정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는 상태로 노년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전 연령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다[7]. 노화 불안은 중년의 위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노화 과정의 적응과 성공적 노화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개념이다[8].

노화 불안은 신체적 ·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족, 인구학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9]. 중년기의 노화 불안은 인종, 건강, 노화에 대한 지식, 교육 정도[6], 스트레스[8], 돌봄 부담, 노후 준비, 삶의 질[10], 외로움, 우울, 연령[11], 노인에 대한 태도, 자기 효능감[12], 주관적 건강 상태[12,13], 성별, 경제 상태[6,13], 죽음 불안[13] 등이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요인은 노화 불안과 관련성이 가장 높으므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중년기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8,9].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은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 실업으로 인한 가족 갈등은 증가하였다[14]. 중년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에 취약하며 이는 정신건강과 가족관계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2,10]. 경제적 측면은 중년기의 노화 불안에 관한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졌으며 가족 돌봄의 책임감에 따른 부담은 노화 불안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9,10]. 따라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 돌봄 부담과 같은 요인은 노화 불안에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의 자살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남성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15]. 남성은 가장으로서의 부담,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더라도 남자다움이라는 정체성 상실을 두려워하여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16,17]. 남자다움이라는 정체성의 영향으로 남성들은 노화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노화 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16]. 또한 남성은 여성보다 노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 남성들의 노화 불안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18].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발생한 자살률은 대부분 농촌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5].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힘이 약하고 경제 수준과 전반적인 인프라 부족으로 건강 불균형이 초래되곤 한다[19,20]. 농촌 지역의 특성은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중년 남성들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노화 불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되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년 남성의 노화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20].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다양한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지만 다른 연령대와 성별에 비해 관심이 부족한 중년 남성의 노화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중년 남성의 노화 불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화 불안, 우울,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가족 돌봄 부담의 정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 불안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노화 불안, 우울,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통 및 가족 돌봄 부담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노화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년 남성의 노화 불안, 우울,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통, 가족 돌봄 부담의 정도와 노화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 군에 거주하고 있는 45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년 남성 180명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

는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α =.05, 검정력 1-β = .90, 중간효과 크기 0.15, 예측변수 10개일 때 필요한 표본 수는 최소 147명이었다. 선행연구[11]의 결과에서 회수율 80%를 고려하여 2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불충분한 응답 20명을 제외한 총 180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2.3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1년 7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시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편의에 따라 G 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기관장에게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연구 수행에 대한 참여와 협조를 구하였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 G 군 소방서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농업기술센터, 인삼쇼핑센터 상인회에 대상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배경, 절차 및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원하면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 및 설문지를 QR코드로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4 연구 도구

2.4.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선행연구[6-13]에서 중년의 노화 불안과 관련 있던 연령, 결혼상태, 교육 수준, 직업, 진단받은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로 구성하였다.

2.4.2 노화 불안

노화 불안은 단일 문항인 “최근 1년 동안 노화로 인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어느 정도 느끼셨습니까?”에 대해 VAS(Visual analogue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점수는 ‘0 = 전혀 없음’에서 ‘10 = 매우 불안’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 불안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4.3 우울

우울은 Kroenke 등[21]이 개발한 우울증 선별도구를 박 등[22]이 수정 · 보완한 한국판 우울증 선별도구(Korean version of 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2주 동안 얼마나 문제를 겪었는지 알아보는 도구로 9개 문항이며 각 문항은 ‘0 = 전혀 없음’에서 ‘3 = 거의 매일’ 점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화하며 점수의 범위는 0-27점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8이었다.

2.4.4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Cohen 등[24]이 개발한 도구를 이 등[25]이 수정 · 보완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Korean version of perceived stress scale-4]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4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없었다 = 0’에서 ‘매우 자주 있었다 =4’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화하며 점수의 범위는 0-16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하며 항목 중 두 문항(2번, 3번)은 역 문항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60이었다.

2.4.5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은 단일 문항인 “최근 1년 동안 경제적 어려움(실직, 폐업, 수입 감소 등)을 어느 정도 느꼈습니까?”에 대해 VAS(Visual analogue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0 = 전혀 없음’에서 ‘10 = 매우 어려움’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높음을 의미한다.

2.4.6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통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통은 단일 문항인 “최근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어느 정도 느끼셨습니까?”에 대해 VAS(Visual analogue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0 = 전혀 없음’에서 ‘10점 = 매우 고통’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높음을 의미한다.

2.4.7 가족 돌봄 부담

가족 돌봄 부담은 단일 문항인 “최근 1년 동안 가족 부양이나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은 어느 정도 느끼셨습니까?”에 대해 VAS(Visual analogue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0 = 전혀 없음’에서 ‘10점 = 매우 부담’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돌봄 부담이 높음을 의미한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화 불안, 스트레스, 우울,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통, 가족 돌봄 부담, 일반적 특성은 서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 불안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였으며 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노화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 불안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 불안 차이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50대가 106명(58.9%)이었고 기혼이 148명(82.2%)이었으며 교육 정도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151명(83.9%)이었다. 직업은 자영업 66명(36.7%)이 가장 많았고 농업 59명(32.7%), 회사원 55명(30.6%)이 뒤를 이었다. 진단받은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가 27명(15.0%), 진단받은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가 7명(3.9%)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 불안의 차이는 없었다.

3.2 대상자의 노화 불안, 우울,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통, 가족 돌봄 부담 정도

대상자의 노화 불안, 우울,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통, 가족 돌봄 부담 점수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노화 불안은 최소 0점에서 최대 10점의 범위로 전체 평균(M=3.68, SD=3.07)이었다. 우울 평균은 (M=4.12, SD=4.54), 스트레스 평균은 (M=5.80, SD =2.30)이었다.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통, 가족 돌봄 부담은 최소 0점에서 최대 10점 범위로 경제적 어려움 평균(M=3.69, SD=3.12),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통 평균(M=4.40, SD=3.50), 가족 돌봄 부담 평균(M=4.18, SD=3.48)이었다.

3.3 대상자의 노화 불안, 우울,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통, 가족 돌봄 부담 간 상관관계

대상자의 노화 불안, 우울,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통, 가족 돌봄 부담 간 상관관계는 Table 3와 같다. 노화 불안은 우울(r=.28), 스트레스(r=.31), 경제적 어려움(r=.57),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통(r=.58), 가족 돌봄 부담(r=.73)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001). 우울은 스트레스(r=.37, p<.001), 경제적 어려움(r=.22, p=.003),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통(r=.12, p=.008), 가족 돌봄 부담(r=.21, p=.005)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스트레스는 경제적 어려움(r=.24, p<.001), 가족 돌봄 부담(r=.23, p=.002)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은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통(r=.57 p<.001), 가족 돌봄 부담(r=.52, p<.001)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통은 가족 돌봄 부담(r=.55, p<.001)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3.4 대상자의 노화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노화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 Difference of aging anxie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ing Anxiety*	
			M±SD	t/F(p)
Age	45-49	41(22.8)	3.20±2.96	1.06(.34)
	50-59	106(58.9)	3.95±3.16	
	60-64	33(18.3)	3.39±2.91	
Marital status	Married	148(82.2)	3.63±3.02	-.10(.91)
	Single & Divorced	32(17.8)	3.69±3.10	
Education level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ion	29(16.1)	4.28±3.12	1.14(.25)
	High school graduation or higher	151(83.9)	3.56±3.06	
Job	Self-employment	66(36.7)	3.79±3.15	.20(.81)
	Agriculture	59(32.7)	3.76±2.92	
	Office worker	55(30.6)	3.45±3.19	
Diagnosed physical disease	Yes	27(15.0)	3.85±3.07	.31(.75)
	No	153(85.0)	3.65±3.09	
Diagnosed mental disease	Yes	7(3.9)	4.57±3.95	.78(.43)
	No	173(96.1)	3.64±3.04	

Table 2. Means of study variables (N=180)

Variables	Range	Mean	SD
Aging anxiety	0-10	3.68	3.07
Depression (PHQ-9)	0-27	4.12	4.54
Stress (PSS-4)	0-11	5.80	2.30
Economic difficulties	0-10	3.69	3.12
Covid-19 psychological distress	0-10	4.40	3.50
Family care burdens	0-10	4.18	3.48

Table 3. Correlation among aging anxiety, depression, stress, economic difficulties, COVID-19 psychological distress, family care burdens (N=180)

	Aging anxiety	Depression	Stress	Economic difficulties	COVID-19 psychological distress	Family care burdens
Aging anxiety	1					
Depression	.28 (<.001)	1				
Stress	.31 (<.001)	.37 (<.001)	1			
Economic difficulties	.57 (<.001)	.22 (.003)	.24 (.001)	1		
COVID-19 psychological distress	.58 (<.001)	.12 (.008)	.15 (.053)	.57 (<.001)	1	
Family care burdens	.73 (<.001)	.21 (.005)	.23 (.002)	.52 (<.001)	.55 (<.001)	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aging anxiety (N=180)

Variables	B	SE	β	t(p)
Depression	.04	.03	.06	1.23(.220)
Stress	.13	.06	.10	1.95(.049)
Economic difficulties	.16	.06	.16	2.71(.007)
COVID-19 psychological distress	.16	.05	.18	2.98(.003)
Family care burdens	.44	.05	.50	8.47(<.001)
F=55.93, p<.001, adjusted R^2=.605				

* TOL : Tolerance
** 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

와 같다.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을 확인한 결과 Durbin-Watson은 1.97로 자기 상관성은 없었으며 공차 한계의 범위는 .58 - .83, VIF 지수도 1.19-1.70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중년 남성의 노화 불안에 유의한 영향요인은 스트레스(β=.10, p=.049), 경제적 어려움(β=.16, p=.007),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통(β=.18, p=.003), 가족 돌봄 부담(β=.50, p<.001)이었으며 설명력은 60.5%이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중년 남성의 노화 불안, 우울,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통, 가족 돌봄 부담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노화 불안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노화 불안 정도는 보통 이하 수준이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노화 불안을 측정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노화 불안 점수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던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11,25]. 노화 불안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다차원적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연령, 성별뿐 아니라 살아온 환경, 문화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7,26]. 중년여성의 노화 불안과 중년기 노화 불안 연구에서도 다양한 변수에 따라 노화 불안 점수에서 차이가 컸었던 점이 이를 뒷받침 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12,13,26].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노화 불안 연구가 부족하므로 다양한 환경, 상황에서 중년 남성의 노화 불안을 파악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 불안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교육 정도, 결혼상태, 직업에 따라서 노화 불안에 차이가 없었던 결과와 유사하다[11]. 하지만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선 교육 정도, 경제적 상태, 건강 상태

등에서 차이가 있었던 결과[12],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연령, 직업, 경제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27]. 이는 노화 불안이 성별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성은 외모와 같은 신체적인 변화에 두려움이 높고 남성은 노인에 대한 두려움이 높다[28]. 성별에 따른 노화 불안에 대한 차이는 노화의 적응 과정과 대처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맞춤형 중재가 필요하지만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노화 불안의 차이를 파악한 연구가 부족하여 연구 결과를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노화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Lasher & Patricia (1993)가 개발한 Anxiety about Aging Scale(AAS)을 사용하여 측정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노화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VAS(Visual analogue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중년 남성의 노화 불안에 대해 다양한 측정방식을 이용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중년 남성의 노화 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중년 남성의 노화 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상자의 노화 불안, 우울,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통, 가족 돌봄 부담 간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통, 가족 돌봄 부담이 높아질수록 노화 불안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중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8,10,25]. 노화 불안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은 중년의 위기를 촉진 시킬 수 있으므로 노화 불안과 관련된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가 필요하다.

중년 남성의 노화 불안은 가족 돌봄 부담,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통, 경제적 어려움, 스트레스 순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가족 돌봄 부담은 노화 불안에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중년기의 노화 불안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가족 돌봄 부담이 노화 불안과 가장 큰 관련성이 있었던 결과가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10]. 중년은 부모와 자녀를 돌보는 이중 돌봄 책임으로 많은 부담을 느낀다[2]. 특히 남성은 가족 부양의 책임을 남자다움의 정체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중년기의 가족 돌봄 부담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자녀와 부모를 최대한 많이 오랫동안 부양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여 가족 돌봄의 범위가 넓었다[29]. 이러한 남성의 가족 돌봄 부담이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게 하고 노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면서 노화 불안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족의 생활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중년 남성의 가족 돌봄 부담을 감소 시키고 가족 돌봄 부담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중재와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 경제, 가족 구조의 변화를 촉진하였으며 외로움과 절망감을 포함한 고통을 증가시켰다[14,30].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남성에서의 음주량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음주에 의존하는 것으로 대처하였다[30.31]. 중년 남성의 노화 불안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외로움과 같은 심리적 고통이 노화 불안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중년 남성의 성공적인 노화 과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11].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의 결과로 비롯된 경제 침체는 경제 활동을 활발히 이어나가고 있는 남성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31,32]. 경제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남성들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게 하며[31] 자살과 같은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다[32]. 중년 남성의 노화 불안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경제 수준이 노화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었던 결과가 이를 뒷받침 해준다[13].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도시 지역에 비해 경제 수준에서 차이가 있으므로[29]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중년 남성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중년 남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중년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스트레스는 중년 남성의 노화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중년기의 노화 불안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노화 불안과 스트레스가 서로 관련이 있는 연구[8], 스트레스 유무에 따라 노화 불안에 차이가 있었던 연구[10]와 유사하다. 중년기는 다양한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29] 특히 남성은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과 같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32]. 남성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유발된 스트레스에 대처에 어려움을 느끼며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으로 보고된다[31,32]. 또한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은 나약한 사람으로 생각하여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야기하지 않고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16,17].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원인이 밝혀지지 않

은 남성의 자살률이 70% 이상 점을 고려해보면 남성은 자신의 심리적 고통을 숨기려는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32]. 따라서 중년 남성의 노화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우울은 중년 남성의 노화 불안과 관련 있었으나 노화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었다. 중년 남성의 노화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우울이 주요 요인으로 확인된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11]. 이는 선행연구의 대상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사무직에 종사하였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는 농촌 지역에서 자영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고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11]. 또한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에 비해 우울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점이 반영되었을 것이다[34].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에 비해 우울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지만,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은 농촌 지역이 더 낮으므로 노화 불안에서 우울은 고려되어야 하는 변수이다[19,34].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 모두에서 노화 불안과 우울이 서로 관련이 있으므로[11,33], 다양한 환경에 노출된 중년 남성의 노화 불안과 우울의 관련성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 농촌 지역의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편의 표출하였고 노화 불안,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통, 가족 돌봄 부담의 측정을 단일 문항의 VAS(Visual analogue scale)를 사용하여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중년 남성의 노화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중년 남성의 노화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가족 돌봄 부담과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추후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중년 남성의 노화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중년 남성의 노화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제언한다.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2021). *Future population projection Statistical information report*. [Internet]. Daejeon: Author; 2021 [cited 2022 July 13]. Available from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ode=read&bSeq=&aSeq=415453&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 F. J. Infurna, D. Gerstorf & M. E. Lachman. (2020). Midlife in the 2020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American Psychologist*, *75(4)*, 470. DOI : 10.1037/amp0000591

[3] M. Dziechciaz & R. Filip. (2014). B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determinants of old age: Bio-psycho-social aspects of human aging. *Annals of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1(4)*. DOI : 10.5604/12321966.1129943

[4] N. C. Davis & D. friedrich. (2010). Age stereotypes in middle-aged through old-old adul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70(3)*, 199-212. DOI : 10.2190/AG.70.3.b

[5] M. E. Beutel, H. Glaesmer, J. Wiltink, H. Marian & E. Brahler. (2010). Life satisfaction, anxiety, depression and resilience across the life span of men. *The Aging Male*, *13(1)*, 32-39. DOI : 10.3109/13685530903296698

[6] S. M. Lynch. (2000). Measurement and prediction of aging anxiety. *Research on aging*, *22(5)*, 533-558. DOI : 10.1177/0164027500225004

[7] K. P. Lasher & P. J. Faulkender. (1993).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Development of the anxiety about aging scal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7(4)*, 247-259. DOI : 10.2190/1U69-9AU2-V6LH-9Y1L

[8] W. K. Lee, H. S. Park & J. Y. Lee. (2019). The effects of life stress and aging anxiety on the mid-life crisis: The mediation effect of resilience.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35(2)*, 99-122.

[9] I. S. Kim & G. R. Kim. (2018). The meta-analysis on variables related to aging anxiety of middle and old aged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8(2)*, 309-327.

[10] J. S. Kim & S. Kang. (2012). Baby boom generation's burden for taking care of children, aging anxiety, preparations for old age and quality of life. *J Korean Pubilc Health Nurs*, *26(3)*, 440-452. DOI : 10.5932/JKPHN.2012.26.3.440

[11] E. J. Cha & S. H. Lee. (2015). Effects of depression, loneliness, and social support on aging anxiety in middle-aged me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5)*, 2705-2717.

[12] S. R. Suh & H. J. Choi. (2013). Aging anxiety and related factors of middle-aged adults. *Korean J Adult Nurs*, *25(4)*, 464-472.
DOI : 10.7475/KJAN.2013.25.4.464

[13] E. A. Oh & K. H. Park. (2021). Factors affecting aging anxiety of middle-aged Korean adul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6(3)*, 509-528.
DOI : 10.17315/kjhp.2021.26.3.005

[14] N. Kathirvel. (2020). Post COVID-19 pandemic mental health challenges. *Asian journal of psychiatry*, *53*, 102430.
DOI : 10.1016/j.ajp.2020.102430.

[15] A. S. Jiwane & R. V. Bardale. (2020). Trends of suicid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 autopsy-based study. *IP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nsic Medicine and Toxicological Sciences*, *6(4)*, 127-130.

[16] C. B. Eriksen. (2021). Men in/and crisis: The cultural narrative of men's midlife cirses. *Journal of Aging Studies*, *57*, 100926.
DOI : 10.1016.j.jaging.2021.100926

[17] S. O'Donnell & N. Richardson. (2020). No country for middle-aged men?. *International Journal of Mens Social and Community Health*, *2(2)*, e32-e45.
DOI : 10.22374/ijmsch.v3i2.322

[18] A. T. Freeman, Z. I. Santini, S. Tyrovolas, C. Rummel-Kluge, J. M. Haro, & A. Koyanagi. (2016). Negative perceptions of ageing predict the onset and persistence of depression and anxiety: Findings from a prospective analysis of the Irish longitudinal study on ageing(TILDA).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99*, 132-138.
DOI : 10.1016/j.jad.2016.03.042

[19] E. C. Ziller, N. J. Anderson & A. F. Coburn. (2010). Access to rural mental health services: Service use and out-of-pocket costs. *The Journal of Rural Health, 26(3)*, 214-224.
DOI : 10.1111/j.1748-0361.2010.00291.x

[20] D. J. Peters. (2020). Community susceptibility and resiliency to COVID-19 across the rural-urban continuum in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Rural Health*, *26(3)*, 446-456.
DOI : 10.1111/jrh.12477

[21] K. Kroenke, R. L. Spitzer & J. B. Williams. (2001). The PHQ-9: validity of a brief depression severity measure.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16(9)*, 606-613.
DOI : 10.1046/j.1525-1497.2001.016009606.x

[22] S. J. Park, H. R. Choi, J. H. Choi, K. W. Kim & J. P. Hong. (2010).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atient-health questionnaire-9 (PHQ-9). *Anxiety and mood*, *6(2)*, 119-124.

[23] S. Cohen, R. C. Kessler & L. U. Gordon. (1995). *Measuring stres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4] J. H. Lee et al. (2012).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erceived stress scale. Korean Journal of Psychosomatic Medicine, *20(2)*, 127-134.

[25] M. Y. Jang, E. Y. Jung & E. Y. Kim. (2014). Effects of life satisfaction, preparation for old age, aging anxiety on the depression in middle aged me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1)*, 493-505.

[26] R. J. Yun & M. E. Lachman. (2006). Perceptions of aging in two cultures: Korean and American views on old age.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21(1)*, 55-70. DOI : 10.1007/s10823-006-9018-y

[27] E. C. Nam et al. (2021). Factors affecting aging anxiety among late middle-aged women. *The Korean Society of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38(1)*, 136-146.
DOI : 10.12925/jkocs.2021.38.1.136

[28] R. J. Brunton & G. Scott. (2015). Do we fear ageing?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ageing anxiety. *Educational Gerontology*, *41(11)*. 786-799.
DOI : 10.1080/03601277.2015.1050870

[29] Y. K. Kim, J. S. Lee, S. H. Son, S. H. Cho & S. A. Park. (2018). *Changes in double care burden in Korean families with middle-aged and older heads: Policy implications*. [Internet]. Sejong ; 2021 [cited 2022 July 26]. Available from : https://www.kihasa.re.kr/publish/report/list?type=all.

[30] K. Thompson, D. J. Dutton, K. MacNabb, T. Liu, S. Blades & M. Asbridge. (2021). Changes in alcohol consump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xploring gender differences and the role of emotional distress. *Health Promotion & Chronic Disease Prevention in Canada: Research, Policy & Practice, 41(9)*, 254-263.
DOI : 10.24095/hpcdp.41.9.02

[31] M. J. Wilson et al. (2022). "Appreciate the Little Things" : A qualitative survey of men's coping strategies and mental health impac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merican Journal of Men's Health*, *16(3)*.
DOI : 10.1177/15579883221099794

[32] M. Koda, N. Harada, A. Equchi, S. Nomura & Y. Ishida. (2022). Reasons for suicid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Japan. *JAMA network open*, *5(1)*, e2145870-e2145870.
DOI : 10.1011/jamanetworkopen.2021.45870

[33] H. S. Kim. (2021).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in late middle-aged me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2(4)*, 377-387.
DOI : 10.15207/JKCS.2021.12.4.377

[34] K. D. Park, S. G. Lee, E. Y. Lee & B. Y. Choi. (2017). A study on the effects of individual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built environments on resident's depression-Focus on the community health survey 2013-2014 of Gyeeonggi providence in Korea.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2(3)*, 93-108.

강 문 희(Moonhee Gang) [정회원]

- 1998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5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정신간호학박사)
- 2010년 8월~현재 :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관심분야 : 정신건강, 자살예방
- E-Mail: mhgang@cnu.ac.kr

곽 동 현(Donghyeon Gwak) [정회원]

- 2014년 2월 :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학사)
- 2021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21년 3월~현재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박사과정)

- 관심분야 : 정신건강, 정신장애
- E-Mail : donghyeongwak@gmail.com